



장보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사무처장 장보현입니다.
지난 1차 국회 포럼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규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안위의 역할이 상당히 많겠구나.’라는 책임의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제 SMR을 개발하는 여타가 준비 중인데, 그때 주문사항이 ‘규제가 먼저 앞서 나가야된다’, ‘규제가 먼저 체제를 정비하고 선제적으로 고칠 것은 고치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저희가 응답하고자,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SMR 규제 개혁 R&D를 확보했습니다. 20억 원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SMR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느낀 것은 지난번 1차 회의 때 규제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낄 적에, 이 규제를 걸림돌로 생각하는 듯한 행간의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전은 경쟁력이고 안전은 최고의 품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MIF**